

# 대선 악재 위기감에 '음침마속' 초강경 극약처방

### 민주당 부동산 의혹 의원 12명 탈당 권유 미온 대처엔 정권재창출 악영향 재보선 참패 트라우마에 전격 조치 최고위 회의, 당 쇄신 기조에 공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난 소속 국회의원의 12명 전원을 일괄적으로 당에서 내보내는 초강경 극약 처방을 내렸다. 당사자들의 소명 절차도 건너뛴 전격적 조치였다. 부동산 규제 실패와 집값 폭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사태 등으로 4·7 재보선 참패를 겪은 민주당으로서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를 어쩔 수 없이 넘어가다가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도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강력한 음침마속의 조치를 통해 야당인 국민의힘에 자당 소속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 조사를 요구하는 등 역공세를 취하며 국면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라면서도 "동료 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권익위로부터 세부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당 지도부는 연루자 명단을 송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에게만 공유하는 가하면, 이날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의원들의 이름을 가린 채 내용을 공유하

는 등 극도로 신중을 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법 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법 사례의 경우 처분 강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당초 오전 회의 직후로 예상됐던 발표가 한차례 늦춰지기도 했다. 결국 최고위원들은 당의 쇄신 기조에 공감하며 최종 결정을 대표에게 위임한 후 자리를 떴고, 송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속의 끝에 소명 절차를 생략한 '선(先) 탈당 권유'라는 조치를 내렸다. 당사자들의 반발을 무릅쓴 극약처방의 배경에는 이번 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는 '제식구 감싸기',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혀 대선 국면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의 탈당권유 의원 명단에는 송 대표가 직접 지명한 김주영 최고위원과 김희재 법률위원장은 물론 송 대표가 연세대 운동권 동지로서 40년간 동고동락해온 우상호 의원까지 포함됐다. 지도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육침공탄(肉刺毒彈-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이란 표현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송 대표 역시 어느 때보다 깊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는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선 지도부의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억울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탈당된 후에 조사를 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복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운데 민주당의 강경 조치에 정치권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부동산

부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가 이뤄질 경우 불·탈법 투기 논란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도 부동산 자산가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송 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한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사를 받고 의혹을 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익위의 조사에 한계가 있으니 의혹을 제대로 밝혀달라고 특수본에 이첩을 한 상태"라며 "그래서 저희도 징계 조치인 출당이 아닌 탈당 권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차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삼권분립 원칙상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변명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5명을 향해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당 국회의원 12명의 위법 의혹 조사 결과를 넘겨받게 되면 수사대상 국회의원 수는 23명으로 늘어난다.

특수본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 결과에 포함된 부동산 투기 의심 국회의원 중 일부는 이미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경우도 있다"면서 "하지만 권익위의 자료를 받아 다른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를 받는 의원 14명, 뇌물수수 등 의혹이 있는 의원 3명을 수사 중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표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 부덕의 소치”...이용섭 광주시장 수행비서들 비위 의혹 사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수행비서들의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2일에도 관련 입장문을 내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8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비서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시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며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다. 비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자책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혁신과 청렴을 시장 가치로 강조해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면목 없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코로나19 대응과 산적한 업무로 밤낮없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도 참으로 미안하다”면서 “경찰에는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변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며 “광주 발전을 위한 헌안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이 시장의 전 운전기사, 현 수행비서, 금품 제공 혐의자 2명 등 4명을 입건하고, 지난 7일 광주시청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8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수행비서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사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대시민 사과문 발표에 앞서 고개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민주당 초강수 맞대응 “감사원에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 감사원 조사 대상 될수 없어 “시능만 내다 말 것” 지적도

국민의힘은 8일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서 불·탈법 부동산 거래 의혹이 있는 12명의 자당 의원들에 탈당 권유를 내리고 국민의힘에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역공을 펼친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의뢰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에 대한 권익위 조사와 관련해선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라며 “사실상 ‘셀프 조사’, ‘면피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감사원 조사’ 카드가 그다지 진정성 있는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감사원법 24조에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는 제외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적으로 감사원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도 ‘시능’만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는 자당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에 대해 ‘의미 있고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평가한 뒤,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다”며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았다고 우기는 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회한 돋운다”며 조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어떠한 공식기구가 됐든 언제든 조사 결과를 수용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